

누구 위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인가



**윤우중의
잠시 심포**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취지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게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많은 여유시간을 제공해 경제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것이었다. 월급이 올라가고 일찍 퇴근하면 저녁이 있는 삶, 보다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렸으나 너무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의 반대에 피로까지 겹쳤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은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수반됐다. 노동자들은 노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돈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줄어드는 임금을 항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수당에 의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임금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취업포털업체 인크루트가 지난

달 말 557명의 직장인들에게 '주 52시간 실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 물은 설문에서도 이런 여론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설문에서 18.1%의 답변자들은 가장 큰 변화로 '임금 감소'를 꼽았다.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했다(5.0%)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취미활동을 시작했다(10.8%)거나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증가했다(10.6%), 운동을 시작했다(8.9%)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지만 임금 감소가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대보다 부정적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올해 7530원 인상의 충격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인상이 급격하며, 노동자는 공약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내년에 1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3년 뒤에는 23만 3000개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늘어나는 임금과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보다 '기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새 트렌드다. 이미 일부 햄버거점 등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라 대형 모니터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투자여력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의욕적으로 펼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도 줄어 충격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이란 세력이 보호해준다.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인건비조차 부담을 이겨낼 수 없어 연일 머리띠를 매고 시위 행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사장님'이란 얘기를 듣는다.

지금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저그런 서민들이다. 시쳇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같이 머리띠 두를 사람도 없는, 폭염을 견뎌가며 버스와 전철로 출근하면서 하루하루를 개미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 종업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여름나기 보양식 나눔 행사

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여명과 홀몸어르신 200여명에게 여름보양식을 제공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은 어린이들에게 치킨, 수박 등을 주고 일일 교사로 활동하며 학습지원 봉사활동을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홀몸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음악 공연도 했다.

/포스코건설



호반, 리솜리조트 회원모임과 상생협약 체결

(주)호반은 지난 14일 리솜리조트 회원모임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회원비대위)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비대위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호반과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



동원그룹, 美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

동원그룹이 15일(한국시간) 미국 피츠버그 셰라톤 호텔(Sheraton Station Square Hotel)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열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90명의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의 가족, 펜실베이니아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원그룹



한샘, 말복 맞아 전국 대리점서 수박나눔 이벤트

한샘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전국 인테리어 대리점주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박 나눔 이벤트를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본사 관계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수박을 전달했다. 이날 이벤트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진행됐다. 한샘디자인파크 고양스타필드점에서 대리점 관계자, 본사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샘

CJ제일제당 펫푸드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 모집

CJ제일제당이 사료 위에 유산균을 뿌려먹는 신개념 토폰 펫푸드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네이처 하루케어' 체험단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까지 오네이처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오네이처 하



루케어' 20일분을 제공하며, '피부유산균'과 '장유산균'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제품 체험 후 우수한 후기를 남긴 체험단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상속과 증여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잡지**

이분들의 관심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애에서 번 돈은 이번 생애에서 다 쓰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판 폴란은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이란 책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나머지는 편안하게 모두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

고, 살아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반대는 상속자, 수증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유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든 상관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증여받는 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의 원칙은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다음은 협의상속, 마지막이 법정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배우자, 4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직계란 피(Blood)를 말합니다. 상속세가 무서운 것은 수역원에 이르는 돈을 6개월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LG그룹 회장님의 상속세 규모가 1조원이라고 하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상속개시시점과 동일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강남 부유층들의 절세방법으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가입시켜 2차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가장 좋은 세대이다. 이들의 관심은 상속과 증여이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할 자산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더욱 많은 자산을 가족들에게 남겨 주기 위함입니다.

/오원금증권연구소 대표

인사

- ◆ **금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 행정인사과장 유영준
-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장 최우혁
- ◆ **병무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유병호 △ 병역자원국 서승일 △ 병역자원국 석종성 △ 입영동원국 박재정 △ 입영동원국 이

- 연우 △ 사회복지국 박용준 △ 서울지방병무청 황민환
- ◆ **특허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호형 ◇ 부이사관 전보 △ 산업재산정책과장 정인식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이춘우 △ 산업재산인력과정 정성창
- ◆ **동국대 서울캠퍼스** △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장 전병건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종진
- ◆ **경산시(5급 전보)** △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 서부1동장 이한재 (6급 전보) △ 체육행정담당 김충렬 △ 세외수입체납담당 손광락

부음

- ▲ 조병희씨 별세, 박용신·상신(대림산업 대표이사)씨 모친상 =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충남 예산 화산추모공원. 02-

- 2227-7550
- ▲ 김필안씨 별세, 구자익·구자형(JCN울산 중앙방송 대표)·구자일(중앙미디어네트웍 대표)·구정화(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씨 모친상, 홍창수(홍한의원 원장)·김채규(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물푸레복지재단 이사장)씨 빙모상 = 15일 오전 8시 46분,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10-3598-9112
- ▲ 이연덕(전 천도교 울산교구장)씨 별세, 이지봉(포스코과장)·이지근(전 울산매일 편집국장)씨 부친상, 신현우(전 풍산금속)·김영일(전 한주 상무이사)씨 빙부상 = 15일 오전 4시,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 VIP 2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10-6563-7113
- ▲ 조항희씨 별세, 환기 하나생명본부장·송기 삼성SDS상무·혜정씨 부친상, 안상민 AM전자대표 장인상, 김선희·김진영씨 시부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02-3410-315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124호